

A CASE OF LISTERIA MENINGITIS IN A RENAL TRANSPLANT RECIPIENT

Y.S.Shin, C.W.Yang, S.A.Yoon, Y.S.Kim, Y.S.Yoon, and B.K.Bang

Dept. of Nephrology,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Seoul, Korea,

Conventional immunosuppressive therapy with corticosteroid, azathioprine, or cyclosporine, or the use of orthoclone OKT3 for treatment of rejection might b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infection.

We report a case of Listeria meningitis in a renal transplant recipient receiving cyclosporine, azathioprine, and prednisone. This 42-year-old male with a history of renal transplant (December 29, 1986) was hospitalized on March 8, 1993 with headache and fever for 5 days. On admission, the patient had a temperature of 39.2°C and the neck stiffness. The patient's initial peripheral leukocyte count was 10,800/mm³ (83% PMN cells, 5% lymphocytes, 12% monocytes). The blood urea nitrogen and serum creatinine concentrations were 45.9mg/dl and 2.8mg/dl. A sample of CSF was obtained with an opening pressure of 335 mmH₂O, and contained 850 WBC/mm³ (82% PMN cell, 18% lymphocytes), a glucose concentration of 15 mg/dl, and a protein concentration of 120mg/dl. A gram stain of CSF showed gram-positive bacilli, and a culture for *L. monocytogenes* was positive. The brain MRI revealed ischemic infarct areas at both cortex of the frontal lobe without the evidence of meningitis. The patient was treated primarily with ampicillin with good results.

신이식 환자에서 발생한 악성 임파종 2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임상병리학교실 *
윤선애, 윤영석, 진동찬, 김용수, 신완식, 방병기, 최영진 *

장기 이식 환자에서 면역억제제의 결과로 일반에서보다 악성종양의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중 악성 임파종은 피부암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종양 중 하나이며 특히 최근 EBV 감염과 관련하여 B-세포 악성 임파종이 발생한 경우의 보고가 있다. 저자들은 최근 신장이식 후 6개월 이내에 악성 임파종이 발생하여 확진된 증례 2예를 보고한다.

증례 1.

52세 남자가 약 5개월 전 아들이 제공한 생체 신장이식을 받고 수술 직후 급성 거부반응 발생하여 OK-T3 단일 항체를 1일 5mg씩 5일간 투여하였다. 이후 신기능 호전되고 외래 추적관찰 받다가 좌측 하악골 부위에 크기가 증가하는 종괴가 있어 조직 생검 결과 B-세포 악성 임파종을 확인하였고 EBV VCA Ig G가 1:3200으로 강양성을 보였고 EBV에 대한 in situ hybridization 시행결과 강양성을 보였다. 치료는 면역억제제인 Cyclosporin을 약 7일간 중단하였고 항바이러스제인 Acyclovir를 1일 750mg씩 4주간 투여하였다. MACOP-B 항암요법을 4주째까지 시행하였고 종양 부위에 대한 국소 방사선 요법을 6,480rad 까지 조사하였으며 현재 부분관해 보이고 있으며 이식신 기능도 정상이다.

증례 2.

37세 여자가 약 5개월 전 먼 친척이 제공한 신이식을 받고 별 문제없이 외래 추적관찰중 갑작스런 하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다. 이학적 소견과 혈액소 감소, 전산화 단층촬영상 장파열 의심하에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시야상 공장파열과 함께 5x6cm 크기의 불규칙한 결절상 종괴가 공장절막하에 있었다. 조직 생검 결과 B-세포 악성 임파종이었고 EBV VCA Ig G가 1:80으로 양성이었으며 EBV에 대한 in situ hybridization 시행 결과 역시 강양성을 보였다. 환자는 수술 후 약 2주간 Cyclosporin을 절반용량으로 투여했고 Acyclovir를 1일 500mg씩 3주간 투여했다. 수술 3주 후 MACOP-B 항암요법 1주째 시행중 심한 백혈구 감소증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